

외교부 :

하나의 중국 원칙 도전 시대의 흐름에 파묻히게 될 것

미국 일각에서는 유엔총회 결의안 제 2758 호를 외국하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은 20 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중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다. 미국 일각에 정숙히 고한다. 시대의 거센 흐름을 따르면 변장하고 거스르면 망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면 결국 시대의 흐름에 파묻힐 것이며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면 력사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신화넷

‘대만독립’ 소동 한번 일으킬 때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수호 강도도 더 커질 것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은 23 일 관련 질문에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도 주변에서 련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되고 정당하며 필요한

것”이라면서 ““대만독립” 분렬 세력이 소동을 한번 일으킬 때마다 중국과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는 강도도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 신화넷

중국 반대 개인 및 조직 엄벌할 것

중국 외교부가 최근 미국 의회 전 의원 켈러거에 대한 제재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은 22 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국가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중국을 완강하게 억제하고 반대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왕문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의회 전 의원 켈러거는 최근 몇년간 사리사욕과 중국에 대한 편

견으로 중국 관련 문제에서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중·미 관계를 파괴하고 중국의 리익과 중·미 량국의 공동리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 성격과 영향은 모두 매우 악랄하다. 왕문빈은 〈중화인민공화국반외국제재법〉에 따라 중국은 켈러거에 대해 입경 금지와 중국내 재산 동결, 중국내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을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대만당국 , 과폐말라와 ‘금전외교’

대만당국이 과폐말라에 ‘금전외교’를 람발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도 확실하다고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이 21 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왕문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폐말라 전임 대통령 포르티오는 취임 기간 대만당국으로부터 퇴물을 받아 이른바 ‘과폐말라와 대만의 국교’를 유지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2023 년 과폐말라의 대만병원 건설 프로젝트에서 부정부패 사건이 폭로되었고 과폐말라 관련 관원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들어갔다. 대만당국의 여러가지 행각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아무리 노발대발하며 꾀변을 늘어놓는다 해도 대만당국이 ‘금전외교’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도모했다

/ 국제방송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

‘대만독립’은 죽음의 길 종용과 지지는 필연코 실패

20 일,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 진빈화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민진당당국이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독립’을 꾀하기 위한 도발을 이어가며 이른바 ‘국제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그 행위는 섬내의 주류 민의를 완전히 위배하고 대만해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대만독립’은 죽음의 길이며 ‘대만독립’을 종용하고 지지하는 것은 필연코 실패할 것이다. 민진당당국이 ‘외세에 의거하여 독립을 꾀하는 것’과 외세의 간섭을 대만 민중들에게 심각한 화를 가져다줄 뿐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개변시킬 수 없고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구도를 흔들 수 없으며 중국이 결국 통일되는 력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

진빈화는 한 기자가 미국 등 소수 국가에서 퇴청덕의 ‘취임식’에 사람을 파견해 그의 ‘취임’을 축하하고 민진당당국이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

는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고 물었을 때 이같이 대답했다.

진빈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 밖에 없으며 대만은 중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동인식으로서 세계 절대다수 국가들이 견지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대외와 인심이 지향하는 바이다. 우리는 미국 등 수교국들의 중국 대만지역과의 모든 형식의 공식적 거래를 단호히 반대하며 어떠한 방식이나 어떠한 구실로든 대만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및 관련 국가들에서 즉시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에 대한 엄숙한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며 대만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만독립’ 분렬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신화넷

‘대만독립’ 위험성 매우 크고 위해성 매우 강해

전문가들 퇴청덕의 ‘5.20’ 연설 분석

대만지역 지도자 퇴청덕의 ‘5.20’ 연설에 대해 여러 대만문제 전문가들이 련일 인터뷰에서 퇴청덕의 잘못된 언론은 분리주의 사유로 관통되고 그의 ‘대만독립’ 량상은 더욱 급진적이고 모험적이며 ‘반중국’을 대대적으로 고취하고 대륙에 대한 적개심과 적대시를 선동하였으며 ‘민주대만 독립론’, ‘평화분렬론’ 등 억지설을 조작하고 극력 외부세력에 의지 영합하여 계속 ‘외세에 의지한 독립’, ‘무력에 의지한 독립’을 꾀하고 있는데 태도가 매우 건방지고 성격이 매우 악렬하며 위험성이 매우 크고 위해성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철두철미한 ‘대만독립 자백서’

하문대학 대만연구원 교수 장문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5.20’ 연설은 추호의 선의도 성의도 없으며 악의와 적의로 가득차있다. 퇴청덕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력사와 법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측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며 ‘량국론’을 미친듯이 퍼뜨렸는바 ‘대만독립’ 주장이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했다.

상해대만연구소 소장 예영결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퇴청덕의 연설은 한편의 철두철미한 ‘대만독립 자백서’로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만독립’ 리념과 량상도가 관통되었다. 량안 정채에 대한 그의 문술은 ‘량국론’의 변종이자 완전한 짜맞추기식 ‘대

만독립’ 문술로서 량안 관계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그의 이른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대서특필은 ‘대만독립’의 정신적 동원을 강화하고 ‘대만독립 명분’의 새로운 정치조작을 시작하려는 시도인바 그 악렬한 정도는 진수편, 채영문을 능가한다.

예영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륙과 대만은 비록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량안이 같은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은 종래로 개변된 적이 없고 개변할 수도 없다. 대만은 중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분으로서 그 전도는 대만동포를 포함한 14 억여명의 중국인민만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퇴청덕은 연설에서 이른바 ‘대만주권’을 부르짖고 ‘중화민국 대만의 미래는 2,300 만 인민이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고취하면서 ‘대만 주민 자체 결정’으로 ‘법리적 대만 독립’을 추동하려는 음모와 망상을 드러냈다.

◆중국에 맞서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도발

예영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퇴청덕의 연설은 도발과 적의로 가득차고 대륙의 ‘위협’, ‘침투’, ‘희색협박’을 대대적으로 부풀리며 ‘중국에 맞서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심리를 선동하였으며 의도적으로 량안의 대립과 대결을 고조시켰다. 이는 대만을 일층 전쟁의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고 광범한 대만 동포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줄 뿐이다.

북경련합대학 대만연구원 교수 주송령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퇴청덕은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허튼소리로 망쳤다. 그 태도가 거만하고 뽐장이 완고하며 성격이 악랄하다. 위험한 ‘대만독립’분자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급진적인 도발자이자 성격된 ‘골치거리 제조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대만해협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불확실성과 더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퇴청덕의 연설에서 이른바 ‘평화’는 근본적으로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자들의 거짓말을 은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예영결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퇴청덕은 대만 동포들의 리익과 복지를 외면하고 섬내 주류 민의를 거스르고 있으며 평화발전의 바른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도발과 대결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섬내 각계의 량안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갈망, 량안의 교류를 회복하려는 기대를 무시하고 오히려 대만 민중을 더 깊은 실망과 근심 지어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만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물과 불 같이 융납될 수 없으며 ‘대만독립’ 세력은 스스로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대만 민중을 재앙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다니 얼마나 악랄한가.

◆‘외세에 의지한 독립’을 꾀하는 민족반역자

주송령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퇴

/ 신화넷

동부전구

합정편대 다방면 대만도 접근 전투 순찰 훈련 태세도 발표

多方向抵近台島戰巡演練態勢圖

동부전구

대만도 주변서 련합훈련 실시

越海鶯鷗

東風快遞

登陸猛將

0520

071

越海鶯鷗

炸彈卡車

登陸猛將

0520

071

越海鶯鷗

量大量能

登陸猛將

0520

071

越海鶯鷗

東風快遞

登陸猛將

0520

071

越海鶯鷗

炸彈卡車

登陸猛將

0520

071

越海鶯鷗

量大量能

登陸猛將

0520

071

[국제시평]

미국—대만 결탁 ,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 수 없다

얼마전 자칭 ‘대만독립 실무운동가’라는 퇴청덕이 대만지역 지도자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량안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며 대륙의 ‘군사적 위협’을 대대적으로 과장하고 계속 ‘외세에 의거한 독립’, ‘무력에 의거한 독립’ 시도를 엮보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퇴청덕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미국 측은 또 그의 취임식에 대표를 파견했다. 이는 미국과 대만이 공모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한 최신 표현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날뛰여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국제사회의 판도를 흔들 수 없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때문에 지역 선거를 치르든 ‘집권’당국이 바

꺾든 이는 모두 중국 내부의 지방 사무일 뿐이다. 퇴청덕은 연설중 ‘량국론’을 공공연히 퍼뜨리고 대만을 세계와 ‘련결’시키며 ‘대만문제 국제화’를 추진하고 대만해협 국면에 외세를 끌어들여 ‘외세에 의거한 독립’과 ‘무력에 의거한 독립’을 달성하려고 고심했다.

한편 미국의 일련의 잘못된 언행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 개 공동성명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대만지역과 문화와 상무 및 기타 비공식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저들의 정치적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는 미국과 대만의 결탁과 도발이야말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진정한 위협임을 거듭 보여주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퇴청덕이 취임사

에서 망언을 한 것은 미국의 ‘묵인’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장기간 퇴청덕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을 빌린 ‘대만독립’ 발언을 통해 중국 대륙의 반응을 떠보려 했다. 게다가 올해는 미국 대선인 해이프로 미국 일각에서는 ‘대만카드’를 리용해 득표하려는 의도도 있다.

국제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대만은 지난 8 년 동안 10 개의 이른바 ‘수교국’을 잃었다.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만당국의 대외 활동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미국과 대만이 아무리 결탁해도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현재 전세계 183 개국이 중국과 수

청덕은 ‘민주공동체’, ‘평화공동체’라는 망상을 꾸며내고 극력 미국과 서방의 반중국 세력에 빌붙어 영합하면서 대만 동포의 리익과 중화민족의 리익을 팔아넘기는 ‘투명장’ (投名狀) 으로 외국 주인에게 ‘대만독립’ 지지를 구걸하고 있다. 그는 달갑게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외부세력의 ‘얹잡이’와 ‘바둑돌’로 되어 이른바 ‘가치외교’를 통해 미국과 서방의 반중국 진영에 의거하여 ‘대만문제 국제화’를 일층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에누리없는, ‘외세에 의지한 독립’을 꾀하는 짓이다.

장문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퇴청덕은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대륙에 맞서려는 의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으며 자기 일당의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를 분렬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바 기본적인 민족집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는 극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예영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퇴청덕이 부르짖는 이른바 ‘가치외교’는 자신의 ‘민주전선 일일’이라는 역할을 표방하여 대만 민중을 기쁘하고 국제사회를 오도하려는 시도이다. 그의 이른바 ‘민주’도 역시 거짓말로 대만 동포를 우롱하고 대만과 대만 민중에게 해를 끼치려는 추악한 심보를 포장한 것인바 그 음모는 기필코 실패할 것이다. 주제념은 반역자들은 반드시 막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신화넷